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 육계불황 장기화 막아야 한다!

### 원종계 쿼터제, 종계 환우금지, 미등록 종계장 대응책 강구

#### AI로 인한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육수 증가

2014년 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찾아들며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AI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가져오며 양계산업을 뒤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번 AI로 340만수가 넘는 육계가 살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계 공급과잉이 나타나면서 복경기를 앞둔 닭고기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입식된 육용종계는 732만수로 지난 2013년도 686만수에 비해 6.7%나 증가된 수치이고 금년 9월까지 실용계 생산잠재력 역시 5억 8천만수로 지난해 5억 3천만수보다 무려 8.2%가 증가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가축통계에 따르면 1분기 육계사육 마리수는 7,700만수로 전년동기 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계실적(농림축산검역본부 도계실적)도 2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는 업계불황을 반영하듯 종계가 다소 적게 들어가면서 육계 산지 가격이 연평균 1,826원으로 비교적 높게 형성되었으나 금년에는 AI발생과 소비부진으로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 개최되었던 소치올림픽

의 특수도 AI에 묻혀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금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FIFA 월드컵(6월 13일~7월 14일)도 아침 시간대에 대부분 열리면서 큰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9월에 있을 인천아시안 게임이 어느 정도 소비를 받쳐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복경기 이외에는 평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소비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 2013년도 사육수조절을 위해 자조금을 사용하여 50만수의 종계를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는 수준이었고, 금년에는 50여만수의 종계를 AI발생으로 살처분하였지만 이 또한 근본적으로 종계입식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사육감축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닭고기 수입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닭고기 시장이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종계 16만 2천수 유지키로

이런 가운데 지난달 4개 원종사와 관련 단체들이 모여 사육수 감축을 위한 긴급 닭고기 수급조절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불황타개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지난해 원종계는 쿼터제를 실시해 16만 2천수를 수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2분기부터 육계 계열화사업에 신규사업자들의 진입확대와 육계 계열업체 간 과당 경쟁, 육계 시세 강세에 따른 종계 입식 열기 고조 등으로 종계 배부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황을 자초했다. 종계 과다입식으로 실용계가 쏟아져 나오면서 육계 공급 과잉의 불을 지폈고 여기에 AI 발생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닭고기 재고량이 늘면서 육계 공급 과잉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원종계 쿼터제를 16만 2천수로 유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종계 환우금지 방안과 미등록 종계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종계 환우금지를 위해서는 68주령 이상 연장생산을 하지 않을 것과 만약 연장하여 환우를 하다 적발되면 계열사와 농가를 막론하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물론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세부적인 수급상황 및 타당성을 검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키로 하였다.

미등록 종계장에 대해서도 원종계 농장의 협조하에 미등록 종계장에 대해서

는 근본적으로 종계를 분양하지 않기로 하였고, 미등록 종계장을 파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각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지도를 요청키로 하였다. 이밖에 종계 감축 방안과 종계 병아리 가격 인하건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육계산업의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수수 조절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육수조절의 근본은 쿼터제이다. 아무리 자율감축을 유도하더라도 쉽게 지켜지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의 예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쿼터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쿼터제를 강제조항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협의를 통해 수급조절에 맞는 쿼터물량을 배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종계 쿼터제까지 정착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선 닭고기 수요가 최대 관건으로 지목된다. 월드컵 특수와 복 시기가 잇따라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고온 날씨 등이 맞아 떨어진다면 예년 수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에 업계는 그나마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이다.

(사)대한양계협회 홍보부장 김동진

##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국립축산과학원  
문 홍 길 축산자원개발부 자금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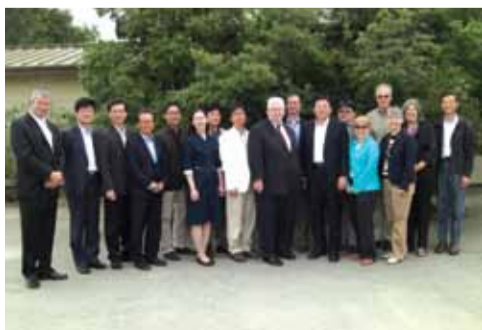
문홍길 자금과장은 지난 3월 25일 자금과장으로 임명되었다.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 미국 농업연구청(USDA-ARS)에서 상주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월 15일 국내로 돌아왔고, 귀국한 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에 자금과장으로 전격 발탁된 셈이다.

이에 대해 문홍길 자금과장은 자신이 그동안 연구원으로 활동도 하고 연구정책국에서 연구운영·관리도 해왔고 국제기술협력과에서 기술지도 파트도 담당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살려 조직을 복구하라는 의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자금관련 분야는 생소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

원래 양돈영양학을 전공한 문홍길 자금과장은 돼지와 닭의 생리가 많이 다르지 않는 점에서는 자금관련 분야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안심했다. 되새김질을 하는 소는 반추동물인 반면, 위가 하나인 닭과 돼지는 같은 단위동물에 속한다는 점에서 생리학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문홍길 자금과장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자금종축 복원 사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사육기술 개발, 개발기술의 보급 및 현장 컨설팅이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로 찾아가 문홍길 자금과장의 향후 자금과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2013년 5월 농촌진흥청과 미국 농업연구청의 공동워크샵에 참석한 문홍길 자금과장(좌측 네번째)



인터뷰

장기적 안목에서 농가분양이 가능한 상태로 자금종축 복원사업에 주력할 것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가 접점을 이루는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필요  
사료효율과 번식효율의 향상은 전 세계 축산인들의 과제이자 목표

■ 국립축산과학원이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국 농업연구청에서 상주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고민해 온 점은 대학교나 기업과는 차별화된 국가연구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저는 고민 끝에 오랜 연구기간이 필요하며 위험도가 높은 연구과제(Long-term, High-risk)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위험도가 높고 결과도 출이 오래 걸리는 연구는 투자한 만큼 충분한 성과나 이윤을 조기에 얻기 어려워 대학교나 기업에서 연구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약 10년 이상)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국내 축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제간(혹은 다학제적)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융복합'입니다. 이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방지 연구'를 할 때는 단순히 영양적 요인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식습관, 경제적 요인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타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학제간 연구입니다. 앞으로 자금과에서도 농학과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현재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생산효율입니다. 이것은 사료효율과 번식효율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흉작이 오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증가로 사료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닭과 같은 단위동물의 사료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경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단 0.01%라도 사료효율을 개선하면 가축두수와 곱하여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사료효율 개선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번식효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종닭 시장이 육계시장의 10% 안팎이고 나머지 90%는 외국에서 종자를 수입해 오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종계

를 수입해 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종계관리, 종란관리, 부화관리를 통해 수입종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벤츠를 사서 티코처럼 타면 안 되듯이 수입한 종계를 활용해 우수한 병아리를 뽑아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대학교, 연구기관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앞으로 자금과의 업무추진 계획은 무엇인지요?

첫째 자금종축 복원사업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토종닭 5품종 12계통에 대해 멸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소에 분산 육성하는 방안을 실시할 것입니다. 현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있던 토종닭 종계를 받아서 이미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부화를 시작했습니다. 3회에 걸쳐 부화를 해서 복원하면 올해 연말에는 기술적 복원이 가능할 것이고, 2015년 말에는 농가분양이 가능한 상태로까지 복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철새도래지를 벗어난 강원도 평창의 한 우시험장 부지에 자금연구단지를 조성해 병아리 입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품질 자금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사육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속농업'에 대해 강조합니다. 친환경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고 친환경 축산물 유통 시 소비자들의 구매여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사육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개발기술 보급 및 현장 컨설팅에 힘쓸 것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리 자금자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자금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양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육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주요 양계단지에 대한 종합기술 컨설팅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통해 양계 주산단지 농가들의 기술력이 향상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조금 제도가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자조금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길 기원합니다.



H O T  
ISSUE

0 0 2

# 농축산부, 'AI 방역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토론회' 개최

## 살처분 및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 후 AI 방역 및 보상 대책 마련할 것



AI 방역대책 및 보상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이동필 장관의 개회사를 듣고 있는 닭고기관련 단체장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지난 5월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방역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축산부 이동필 장관, (사)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 (사)한국도종답협회 문정진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AI 전문가 및 가금농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를 포함해 5차례 AI가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국내 AI 발생을 효과

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동필 장관은 "지금까지 AI로 인해 1,300만 마리를 살처분해 농업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동필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살처분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외에 살처분 및 이동제한조치 시 보상금 문제, 지자체 공무원의 살처분 작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점검하고 이날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전문가그룹, 설문조사, 외국사례조사 등을 통

해 정답을 찾아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어서 농축산부 축산정책과장은 앞으로 AI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사전예방 차원에서 철새도래지를 AI특별방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근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철새로 인한 AI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새 경보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해외에서 AI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농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셋째,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가금농장의 리모델링, 허가제 관리 강화, 밀식사육으로 인한 가금의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농축산부 축산정책과장은 AI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카히스(KAHIS, 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와 GPS 등 IT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발 빠른 초기대응에 앞장설 것이며,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의 재설정 및 SOP에 대한 개정 작업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① AI 특별관리지구 설정 및 관리, ② 방역대 및 방역조치(살처분, 이동제한 등) 보완, ③ 지원·보상제도 개선(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등), ④ 방역체계 개편(가축방역협의회, AI 검사 포함), ⑤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⑥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 ⑦ 백신정책 도입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농축산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AI 방역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가 현실에 맞는 AI 방역 SOP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 필요하다

닭고기관련단체들, 이동제한조치 범위 및 시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대한 입장 전해

올해에는 AI로 인해 약 1,300만 마리의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AI 방역 SOP에는 발생농장 500m 이내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3km 내에서 살처분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별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해 대부분 3km 이내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올해 예방적 살처분의 마릿수가 1,300만 마리가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각 닭고기 관련단체에서는 AI 방역 SOP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의 경우, AI 발생으로 위험지역(3km) 내 출하일령이 된 가금(닭 30일, 오리 45일)의 이동제한 시에는 폐사 증가 및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위험지역 내 출하일령이 된 가금에 대하여 AI 검사 후 음성일 경우에는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해 줄 것과 '가금운송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방안을 통해 AI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계육협회는 AI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 시에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10월 'AI에 대한 특정가축 전염병 방역지침'을 발표했으며 제7조 1의 3항에 의해 환축 또는 의심환축은 병 확정 진단 후 24시간 내에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만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발생농장만 24시간 내에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행 AI 방역 SOP 규정에 따라 AI 발생농장 500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

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대한양계협회는 검역당국이 AI발생 농장 기준 3km 내는 위험지역, 10km 내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위험지역의 경우 21일간 이동제한(역학관계농가 14일)을 실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이 출하가 임박한 시점(30일령)에서 적용될 경우 40일 이상 출하가 지연되어 중량초과로 기존 도계라인에서 도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위험지역 및 역학농가의 AI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경계지역과 마찬가지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SOP를 개정 또는 출하 전 7일 전부터 주 3회 이상 검사실시하여 출하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AI가 처음 발생 시 발생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이동제한조치를 유지하며 전국 확산 우려 시에는 24시간을 유지하고 필요 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이는 사료를 구입하지 못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필요시 발효기간을 12시간으로 조정하여 농가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종닭 등 유전자원의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천연기념물(연산오골계)과 유전자원(축산과학원 우리맛닭 등)의 경우 주변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SOP 규정에 의해 3km 이내에 해당하면 살처분 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국가의 주요한 문화유산 및 원종계는 1~2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순간 멸종할 경우 국내 양계산업은 물론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토종닭 등의 문화유산은 주변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대를 설치하여 충분히 차단방역이 이루어질 경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며, 단 해당 계군이 AI 발생 시에만 즉시 살처분하도록 예외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OT ISSUE

0 0 3

# 달고기관련단체, 닭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 움직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각 지자체, 일방적인 산출근거로 약속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

달고기관련단체가 가금류의 도축검사 공영화를 빌미로 지방재정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도축검사 공영화를 이용해서 각 지자체가 도축검사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성명서에서는 우선 지난해 도축장의 도계 및 계육 검사를 종전 책임수의사에서 지방 공무원 검사관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도축검사 수

수료를 현재의 책임수의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닭 도축검사 예상수수료는 마리당 가격 대비 수수료 비율 적용 시 약 4원이었다.

당시 가금 업계에서는 검사제도의 변경으로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가금 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이를 감수하고 수용했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도축검사 수수료 결정기관인 시·도에서 일방적인 산출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법안 개정 당시 약속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지방재정 확보 차원의 계기로 삼

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 별로 예상되는 닭 도축검사 수수료는 전북 5원, 경기 7원, 충북 7원, 경북 10원, 충남 10원이다.

이어 달고기관련단체들은 도축검사 수수료의 인상은 고스란히 생산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가격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FTA 등 시장개방화 속에서 수입달고기와 가격경쟁에서 뒤쳐져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달고기관련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닭 도축검사 수수료를 타 축종과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 기회에 가

금류 검사제도를 미국, EU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스펙터 제도'를 도입해 주기를 정부에 요청했다. 인스펙터 제도는 수의사 밑에 도축검사를 맡는 전문 인력을 두어 인건비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내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먹거리권을 지키는 일념으로 일하는 달고기 농가들에게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지방재정 확보라는 논리로 농가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불만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치킨의 염지제의 성분과 나트륨 함량 지적

염지제 시료 채취 시 단 하나의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해 객관성에 의문 제기돼

지난 4월 30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불만제로'가 지난 1월 8일에 이어 '염지제 첨가 치킨'에 대해 다뤘다.

방송 초반에는 사회자가 지난 1월 8일 방송 이후 염지제 첨가는 일반적인 치킨 제조과정이라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염지제의 성분 자체와 나트륨 함량에 대해 논하며 다시 한 번 시중에 유통되는 치킨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제작진들은 염지제 첨가가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과연 시중에 유통되는 염지제의 성분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업체를 선정해 쓰레기를 수거한 후 그 안에서 염지제로 쓰인 봉투를 찾아내 성분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면서 연성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등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현재 시중에서 치킨에 첨가되는 염지제는 소시지나 라면, 과자 등 가공제품에 쓰이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조사과정은 단 하나의

시료, 그것도 쓰레기통을 뒤져서 얻은 단 하나의 봉투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조사 과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치킨 전문점 수는 31,139개에 이르고 있으므로 단 하나의 점포(이곳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라고 봤을 때 많게는 100개 점포)에 해당되는 사항을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나트륨 함량을 다루며 외국계 치킨프랜차이즈인 K브랜드의 과도한 나트륨 사용을 지적했다. 1980년대 이 치

킨 브랜드의 상륙으로 자극적인 나트륨 맛에 국민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비록 방송 후반에는 염지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나트륨 함량을 낮춘 생닭을 사용하는 치킨집들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방송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소비자들 치킨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 달고기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다소 우려되기도 한다.

앞으로 공중파 방송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방송 주제를 선정하고 달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해 소개하는 등 달고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길 바란다.

## 농경연, 도계마릿수와 비축물량 증가로 5월 육계산지가격 1,500~1,700원/kg 전망

경기시간 시차로 인해 6월 월드컵 개최로 인한 수요증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5월 달고기 총 공급량이 전년 대비 7.6% 증가하고 달고기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5월 육계산지가격은 전년보다 2~14% 하락한 1,500~1,700원/kg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경연은 5월 도계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9.2% 증가한 7,560만 마리로 전망했다. 5월 달고기 수입량은 미국 내 돼지고기의 달고기 대체수요와 브라질 달고기 생산 차질로 전년보다 14.8% 감소한 7,380톤으로 분석했다. 4월 6일 기준 달고기 냉동 비축물

량은 전년보다 25.2% 증가한 990만 마리였으며, 삼계를 제외한 비축물량이 전년보다 72.9%나 증가하여, AI 발생으로 인한 달고기 수요 감소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도계 마릿수와 비축물량 증가로 5월 달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9,509만 마리로 전망했다.

이에 비해 4월 회복세를 보이던 달고기 수요가 전국적인 소비 침체로 감소하였으며, 수요 감소현상이 지속되어 5월 달고기 수요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농경연은 예상했다.

따라서 5월 달고기 총 공급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지만 수요가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어, 농경연은 육계 생체 kg당 산지가격이 전년보다 2~14% 하락한 1,500~1,700원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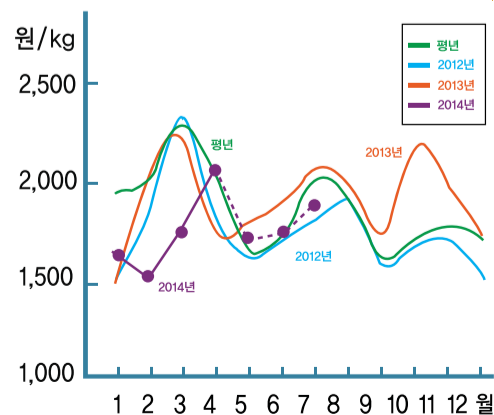
또한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가 높아지면서 6~7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각각 7.9%, 7.8% 증가한 7,750만 마리, 9,964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6월 월드컵 개최로 인한 달고기 수요증가는 경기시간의 시차로 인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으며, 7월 초복 수요는 비가 왔던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종합해 농경연은 6~7월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계 마릿수 증가로 6

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2~13% 하락한 1,600~1,800원/kg, 7월은 4~14% 하락한 1,700~1,900원/kg으로 전망했다.

육계 산지가격 전망



자료 :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국립축산과학원, 혹서기 극복을 위한 육계 사양관리 요령 제시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22~25℃)보다 높을 것이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비해 강수량은 평년(501~940mm)과 비슷한 것으로 예측해, 한층 더워진 공기에 비해 비소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인지 대형 유통업체와 인터넷쇼핑몰에는 벌써부터 여름철 보양식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혹서기 극복을 위한 육계 사양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 단기적 대책, 축사시설 내 장비 점검과 활용 요구돼

단기대책으로는 급수탱크나 급이기, 환기장치, 냉방장치와 같은 축사시설 내 장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육계농장의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병아리를 입추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육밀도는 단위면적당 열 발생과 비례한다. 따라서 국립축산과학

원은 여름철에는 평상시에 비하여 10% 정도 입추수를 줄이고, 항상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필수적이며, 급수탱크의 단열처리, 탱크 안에 얼음을 넣어 두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창계사의 경우에는 환기장치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입기구는 최대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 개방해 주고, 자동 조절되는 입기구는 최대 환기조건에서 완전개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냉방장치가 설치된 계사에서는 냉방장비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계사에 쓰이는 냉방장비는 대부분 물을 이용하게 되므로 물이 새거나 흐름이 막히는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쿨링패드는 설치류의 피해를 받기 쉬운 시설물이므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계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연환기식 계사 내에 선풍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닭이 느끼는 체감

온도를 저하시켜 간편하면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선풍장치를 설치할 때는 천장에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경 91cm(36인치)의 직립식 선풍기를 32°의 각도로 10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면 초속 3m 정도의 풍속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의 체감온도 저하 효과는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 장기적 대책, 계사 신축과 사료배합에 따른 고려사항 제시

국립축산과학원은 장기적 대책으로 계사의 신축과 사료배합의 비율조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계사를 새로 신축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건축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하여 동서방향으로 설계하며, 그늘을 만들기 위하여 처마를 만들면 좋다고 국립축산과학원은 설명했다. 벽과 지붕의 단열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여름철에 계사내로 유입되는 열의 약 70%는 지붕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지붕에 대한 단열처리가 중요하며, 선풍

기의 설치 및 고압문무장치 설치도 근본적으로 혹서기 더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온이 오래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기화 냉각 장치를 설치한 턴넬식 환기를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은 급여사료의 배합표 작성에도 유의하여 혹서기 생산성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온으로 인하여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면 영양수준을 조정하고 품질이 좋은 균형 잡힌 사료의 급여가 중요하므로, 사료의 총 단백질 함유량을 억제하면서 아미노산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 좋은 단백질원과 합성아미노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사료섭취량은 기온이 32~38℃사이에서는 온도가 1℃씩 올라감에 따라 5%씩 감소하며, 20~30℃사이에서는 1~1.5%씩 감소한다. 사료섭취량이 5% 또는 10% 저하하게 되면 사료중의 영양수준을 높여주어야 하며, 특히 단백질, 비타민과 미네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육계질병가이드 / 콕시듐증 사례

5월에 들어서면서 일교차가 심해, 계사 온도/환기관리에 신경이 쓰이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차가 있지만 최근에는 콕시듐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자주 관찰됩니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 콕시듐증 사례가 있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무창계사에서 약 70,000수를 사육하고 계신 삼계 사육농장으로 3~4주령에서 반년이상 지속적으로 콕시듐증이 발병하는 중이었고, 항콕시듐제제를 투약해도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 제품을 바꿔서 사용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점이 미심쩍어 상담을 좀 더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 깔짚을 1년에 1번 교체함
2. 동일한 성분의 항콕시듐 제제를 계속 사용함

첫 번째로 깔짚은 많은 질병의 매개원이 되지만 의외로 콕시듐 원충은 발효열과 암모니아로 인해 깔짚에서의 생

존력이 낮습니다. 다만, 깔짚을 좋아하는 각종 벌레들이 콕시듐 원충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IBD 등의 면역억제 질병이 콕시듐 발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먼저 깔짚을 교체해서 콕시듐과 기타 질병의 전파요인을 차단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깔짚 교체 후 아무리 입추가 급해도 1주일 이상 휴지기를 두고 계사 내부의 구충과 소독에 신경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콕시듐 원충 자체는 소독제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요즘처럼 외부온도가 낮은 경우에 콕시듐 원충이 오래 생존하나, 구충과 소독을 통해 계사의 콕시듐 원충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항콕시듐 제제의 성분을 교체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콕시듐제의 성분은 톨트라주릴, 설파제, 암프롤리움 등이 있습니다만 계속 같은 성분의 약제를 사용할 경우, 약제의 내성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powerseeker@hanmail.net로 문의해주세요.

(제공 : 고려비엔피 정윤석)

## (주)하림, '지리산 참眞 홍삼토종닭' 출시



### 봄철 건강회복과 활력증진을 돕기 위해 롯데마트와 공동 기획

(주)하림은 봄철 황사와 춘곤증에 지친 소비자들을 위해 홍삼의 활력을 담은 '지리산 참眞 홍삼토종닭'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홍삼토종닭은 청정지역인 지리산의 친환경인증 농가에서 국내산 홍삼 농축액을 먹고 자란 토종닭으로, 봄철 건강회복과 활력증진을 돕기 위해 롯데마트와 함께 공동 기획한 제품이다.

(주)하림은 봄을 맞아 황사와 춘곤증, 심한 일교차 등으로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건강한 토종닭으로 '춘복(春復, 봄철 피로를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제품을 선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리산 기슭의 넓은 사육 환경에서 자유롭게 키운 토종닭인 만큼 일반 사육장의 닭보다 육질이 쫄깃하고 요리의 맛을 한층 높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강식품으로 인기있는 홍삼과 토종닭의 만남을 통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주)하림의 마케팅 관계자는 "고단백·저지방 식품인 닭은 삼복 더위에는 물론 나쁜 봄철에도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보양식품이다"며 "앞으로도 시즌별 건강 이슈에 맞추어 소비자들이 건강과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삼토종닭은 전국 롯데마트에서만 특별 한정수량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백숙용(통닭 1,050g)과 볶음탕용(절단육 1,000g) 형태로 각각 선보이고 있다.



##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2014년 4월)

(단위: 원)

(단위: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소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소
채종섭		100,000 (100,000)	경북 영천시 고경면	송철호	은진농장	250,000 (520,000)	충남 예산군 대술면
편신호		320,000 (320,000)		김익규		79,710 (79,710)	강원 춘천시 동내면
김재기		255,510 (255,510)		이옥례	해피농장	194,910 (601,320)	전남 곡성군 겸면
배정희		120,000 (120,000)		양영생		128,000 (228,000)	
지구환		200,000 (400,000)	경기 이천시 모가면	김태식		165,000 (165,000)	
배창섭		39,000 (39,000)		이순준	노티농장	80,000 (80,000)	충남 논산시 노성면
안국희		100,000 (100,000)					

※ 2014년 4월 자조금 납부금액 총계는 2,032,130원이며, (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명단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2-585-9974)

### 농협중앙회



#### “신개념 축산물 유통채널! 인터넷 쇼핑몰과 TV 홈쇼핑의 결합!”

##### 농협안심축산 'e-고기장터' 개장

농협 안심축산분사(분사장 함혜영)는 2일 농협중앙회 신관 3층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 이기수 축산경제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개념 축산물 유통채널인 농협안심축산 'e-고기장터' 개장 행사를 가졌다.

'e-고기장터(www.nh-ansimb2b.com)'는 2013년 정부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1년여의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마치고 이날 사업 시행을 공식화했다.

인터넷 쇼핑몰과 TV 홈쇼핑이 결합된 'e-고기장터'는 정육점, 식당, 유통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며 특가상품에 대한 실시간 홍보는 물론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 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안전과 위생에 기반한 신개념 축산물 유통채널인 사이버 장터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대한양계협회



#### FTA 관련 가금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위해 생산자단체 의견 적극 수렴되어야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5월 9일 안성팜랜드에서 'FTA 관련 가금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어

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FTA 등 협상동향 및 국내 보완대책 수립방향 등의 설명이 있었고 대책 초안 마련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분야별 대책안과 생산자단체·지자체의 자체 대책안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월간 양계' 편집위원회

##### 제 20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첫 회의

'월간 양계' 편집위원회(위원장 오경록)가 지난 5월 8일 (사)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제20대 편집위원회가 구성된 이

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경록 위원장(남덕SPF 대표)을 비롯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격월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장 오경록(남덕SPF 대표)

위원장 오경록(남덕SPF 대표)  
위원 김동기(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상무)  
김용화(재)생명사랑하림재단 국장  
김의겸(산내농축 대표/천안육계지부장)  
김학주(양지부회장 대표)  
문홍길(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장)

손영호(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  
안형진(주)카길애그리퓨리나 부사장  
이영란(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 사장  
이희수(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장)  
주동철(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 상기 위원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했습니다.

### (사)한국계육협회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국산 닭고기의 모든 것 소개



##### 5월 1일, '닭고기로 만드는 맞춤 건강 밥상' 방영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봄철 소비 진작의 계기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1일(목) 오전 10시에 KBS1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 방송 홍보를 진행했다.

본 협회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5분간 방영되는 KBS의 장수 교양 정보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 닭고기를 다양하게 활용한 건강 맞춤 밥상을 소개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국산 닭고기의 입지를 시청자들로 하여금 확인시키고자 이번 방송 홍보를 준비하게 되었다.

방송은 날씨가 더워질수록 더 찾게 되는 닭고기 소비에 관하여 최근 한류 드

라마로 인한 중국의 치맥 열풍을 소개하고, 세계 암학회에서 백색육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며 시작했다.

닭고기로 만드는 맞춤 건강밥상 첫 번째 요리는 닭갈비로, 요리연구가가 닭갈비를 집에서 맛내는 비법을 소개했다. 냄새를 잡고 살을 퍽퍽하지 않게 유지하는 법 등을 공개하며 한편으로는 최근 일본에서 각광받고 있는 닭가슴살 속 피로회복 효능 물질인 이미다졸 디펩티드가 소개됐다.

또한 타 육류 대비 지방이 적은 점을 활용하여 닭고기 다이어트를 통해 13kg을 감량한 여성 사례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했다. 닭고기 다이어트의 핵심 비법을 공개하고 영양학 전문가가 근거를 뒷받침함으로써 닭고기 다이어트의 신뢰를



높이며 자연스럽게 닭고기 부위별 특징 및 용도가 소개됐다.

두 번째 닭고기 건강밥상 요리는 참나물 닭 가슴살 무침으로 봄철 나물 컨셉으로 소개됐다. 시연과 비법 공개가 끝난 후 감기회복 및 예방에 좋은 세 번째 건강밥상 요리 닭고기 스프가 소개됐으며 스프가 끓는 동안 방청객 퀴즈로 국내산 닭고기를 고르는 품질보증마크의 소개도 덧붙여졌다.

본 협회 정병학 회장은 “이번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주부 및 중장년층들의 시청률이 높은 전문 교양 프로그램을 방송을 통해 버릴 것이 없는 백색육 닭고기를 효율적으로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중·장년층 등에 맞춰 건강에 두루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닭고기를 즐겨 찾게 되어 소비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TBC ‘똑똑한 정보쇼 꿀단지’방영



피로 회복에 좋은 닭가슴살!

국산 닭고기의 천연피로회복제 효능 검증해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닭고기 효능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금) 오전 9시에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방영된 ‘달콤한 정보쇼 꿀단지’를 통해 방송 홍보를 진행했다.

협회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55분간 방영되는 JTBC의 오전 교양정보 프로그램인 ‘달콤한 정보쇼 꿀단지’를 통해 국산 닭고기의 피로회복 효능을 소개하면서 닭고기의 여러 유익한 효능까지 알리고자 이번 방송 홍보를 준비했다.

이날 방송에는 주기적으로 닭고기를 섭취하면서 근육 운동 및 건강관리를 해온 직장인 사례자가 닭고기를 주기적으로 섭취하지 않은 사례자와 함께 피로도 측정 실험을 위해 출연했으며,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하늘병원의 조성연 원장과 국립축산과학원의 황보중 연구관, 스튜디오에서 닭고기 요리 시연을 도운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함께 출연했다.

방송은 최근 일본에서 그 효능이 밝혀진 닭 가슴살 속의 피로회복 물질 이미다졸 디펩티드를 소개하고 그 효능을 직접 검증해보는 실험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국산 닭고기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례자의 일상생활 공개를 통해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 가능한 닭고기 가공품을 소개하는 한편 정말 국산 닭고기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지 대조군과의 운동 실험을 진행하고 전후 피로도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국산 닭고기의 피로 회복 효능을 검증했다.

또한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의 황보중 연구관 인터뷰를 덧붙였으며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피로 회복에 적합한 국산 닭고기 요리를 시연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국산 닭고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한편, ‘달콤한 정보쇼 꿀단지’는 한국계육협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방송인 박은지씨가 메인 MC로 활약 중인 프로그램으로 아침 시간 주부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 소개하는 전문 교양 정보 프로그램이다.

본 협회 정병학 회장은 “국산 닭고기의 새로운 효능 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확산시키고자 이번 방송 홍보를 준비했다”며 “시청자들에게 천연 피로회복제 국산 닭고기의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소비 촉진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한국토종닭협회



AI 확산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일제소독



토종닭협회는 산남유통분과위원회 각 지회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및 어리장에서 일제소독을 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주관 AI 확산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일제 소독 나서

고병원성 AI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의거 전국 전통시장 및 어리장 등에 철저한 소독을 진행하였다.

본 협회는 각 시군구와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남유통분과위 각 지회를 중심으로 함께 지난 4월 29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전국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지난 4월 23일 울산 울주군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더욱 철저히 차단방역을 하기위해 종사자 스스로 전통시장 관

매점내 어리장, 차량 등 관련시설을 2일간 걸쳐 각 시·도/시·군·구 방계 차량 및 공동방제단과 함께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경기, 충청도(김연수 회장), 전라도(문정진 상임부회장), 경상도(최승호 산남유통분과위원장), 그 외 지역(각 지회장)을 직접 소독 지도 등을 위해 이날 참여하였다.

이날 김연수 회장은 토종닭협회, 전통시장 상인 등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히 당부하였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I 장기화와 세월호 참사로 닭고기관련 행사 축소 분위기

AI의 장기화 여파 및 세월호 참사로 닭관련 행사들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이다.

춘천닭갈비협회는 오는 5월 20일 개최하기로 했던 닭갈비·막국수축제를 9월 2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세월호 참사의 최대피해 지역인 안산시와 자매도시라는 점에서 축제를 마음대로 즐길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4월 8일 천안 성남면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연산오계문화제도 지난 4월 19일에 행사를 축소하여 위령제만 치렀다.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닭고기관련 행사가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적

극적인 소비촉진활동에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우체국은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춘천닭갈비 판매 촉진 운동’에 나서고 있다. 춘천우체국은 우선 전 직원 1인 1건 구매 운동을 추진해 300여개의 춘천 닭갈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사)한국계육협회는 소비촉진활동과는 별도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지난 4월 25일 진도읍 재난구호 현장에 통살 살코기 닭가슴살 100박스를 전달했다.

작은 정성들을 모아 AI 장기화와 세월호 참사로 인한 닭고기 소비침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소식지 70호 1면 3번째 열 첫째 줄 1,270수를 1,270만수로 정정합니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흑로탕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에 흑색의 잡곡과 인삼, 더덕, 검은 깨 등을 첨가하여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다. 검은 깨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어 숙취 해소, 우울증 해소,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다고 한다.

**재료** 닭고기 600g, 검은 콩 20g, 검은 쌀 50g, 검은 깨 50g, 능이(느타리)버섯 50g, 불린 석이버섯 2장, 인삼 1뿌리, 더덕 작은 것 1뿌리, 마늘 4쪽, 대추 1개, 은행 3개, 소금, 후추

Cooking

1. 닭의 안쪽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제거한 뒤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2. 검은 콩은 씻어 6시간 정도 물에 담가 불려놓고 검은 쌀은 씻어 1시간 정도 불려둔다.
3. 불린 석이버섯은 모래와 이물질을 떼어내며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가늘게 채 썰어 놓는다. 능이버섯도 씻어 굵게 찢어놓는다.
4.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인삼은 깨끗이 씻어 놓고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빼 놓는다.
5. 검은 깨를 깨끗이 씻어 물 한 컵과 함께 믹서에 곱게 갈아 채에 내려 놓는다.
6.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채 썬 석이버섯을 살짝 볶아 놓는다.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볶으면 뻣뻣해지고 오그라들게 되므로 주의한다
7. 닭 백숙 안쪽에 먼저 마늘을 넣어 쌀이 새는 것을 막고 흑미, 검은 콩, 은행, 마늘을 섞어 속을 채운 뒤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다리 안쪽으로 칼집을 넣어 닭다리를 엇갈리게 끼운다.
8. 냄비에 검은 깨 즙과 물 4컵을 섞은 후 닭을 넣고 끓이면서 더덕과 인삼, 대추, 능이버섯을 넣고 1시간 정도 삶은 다음 뚝배기에 옮겨 담고 볶은 석이버섯을 곱명으로 얹어낸다. 소금과 후추는 곁들여 내도록 한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날말맞추기

1		9			10
2					
			8		
3	4				
			6		7
5					

- ◇ 가로풀이 ✨ ✨
- 2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
  - 3 아직 다 자라지 아니한 어린 닭
  - 5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 가운데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아이
  - 6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 8 약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파는 곳
  - 9 오륜(五輪)의 하나.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음

- ◇ 세로풀이
- 1 뉴캐슬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원기쇠약·호흡기증세·신경증세·산란율 저하 등이 생긴다
  - 4 운동장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
  - 6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
  - 7 어떤 목적 아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 8 중앙 행정기관의 하나, 국가 방위에 관련된 군정 및 사무를 맡아본다
  - 9 장이 서는 터
  - 10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

기호 정답

남		은	파	늑	문
고	숙	이		늑	
	뽕		러	로	뽕
	논	하			루
로			하	하	하
이	성	성	은		숙



양 계  
비법전수

경영기록부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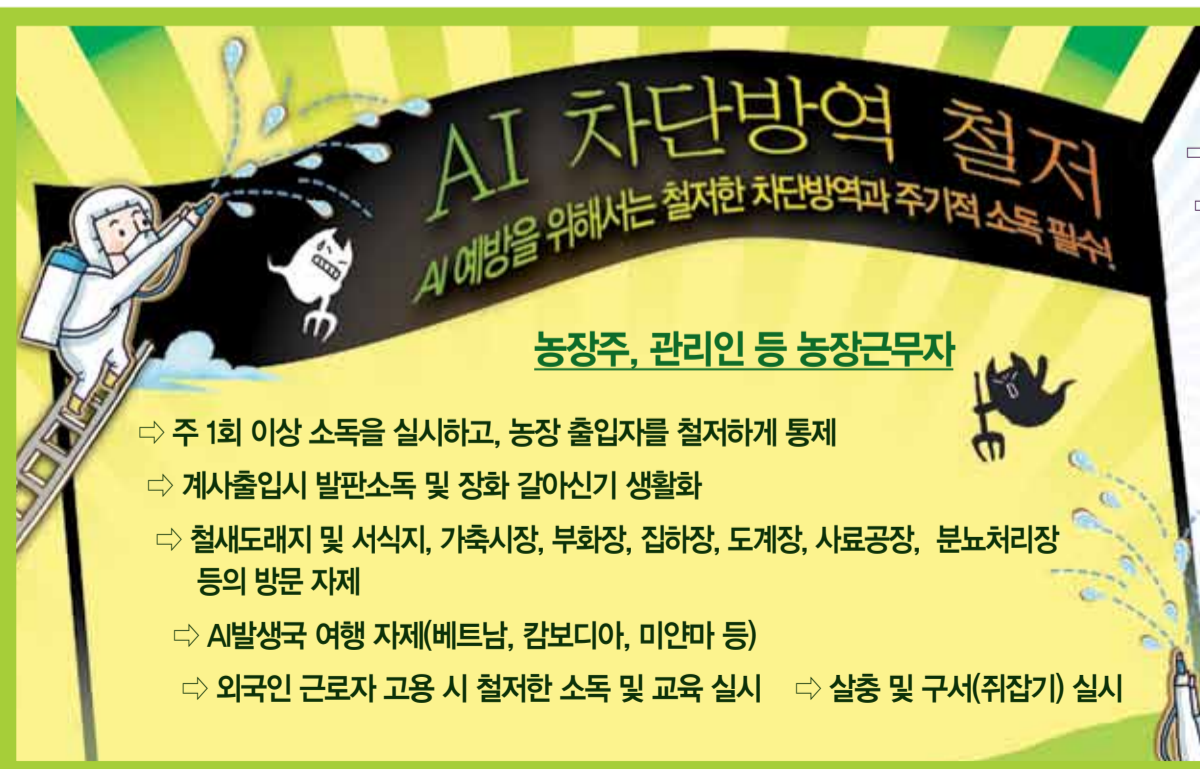
경영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단식부기는 재산의 변동 상황을 일정한 기장원칙이 없이 금전의 출납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증감만을 기

록하는 간단한 기장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재산 상태는 파악할 수 있으나 재산상태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발생을 차변과 대변요소로 구분하고 차변에는 토지, 건물, 농기계, 현금 같은 자산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차입금 같은 부채와 자본

을 기입하는 과학적인 기장 방법이나 어느 정도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영자의 회계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